

1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새롭게 형성된 회중(會衆)이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자.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복음을 들은 유대인 신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상상하자. 이집트에 있는 집에 돌아 왔을 때, 믿는 자들로 구성된 새 언약 단체 (New Covenant body of believers)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그들이 모른다. 따라서 편지에는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진다:

사랑하는 사도님들 ...

우리들은 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까?

교회 모임들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합니까?

모이는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회당 건물 이라도 지어야 합니까?

어떤 형태의 교회 정치를 가져야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이 필요합니까?

성만찬 (Lord's Supper)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주 성만찬을 먹어야 합니까? (유월절과 같이 일년에 한번?)

성만찬을 온전한 식사로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의식으로 먹어야 합니까?

12 사도들이 어떻게 답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각 교회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각각의 교회는 독립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고 답을 했겠습니까? 사도들의 영향에 관계없이 각각의 회중은 독특하고 서로 달라야 한다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 생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로 답변을 했겠습니까? 상세한 행동지침들로? 명확한 의제로? 실수할 우려가 없는 회중 지침들로 답을 했겠습니까?

지난 2000 년간 동일한 문제에 신자들이 직면하였습니다. 교회 관습에 대한 신약 모범들을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초대 교회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선택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전통들이 단지 흥미 있는 역사 입니까 아니면 규범적 교회 관습으로 구성되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복잡해져 왔다. 결론적으로 교회 관습에 대한 신약 모범들이 선택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시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신자들은 여겼다. 예를 들면,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에서 Fee와 Stuart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서술하고 있거나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 라고 말한다.¹ 아무도, 예를 들면, 사사기 11:29 이하에 나오는 입다의 비극적인 예를 따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향한 질문은 신약 성경에 기술된 교회 관습에 대한 모범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약 모범들 중에서 일부를 따르고 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신약 모범들 전부를 따르지 않는가?’ 이다. 이 책은 일관성을 주장한다. 사도들은 교회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갖고 있었다. 교회가 존속하는 한, 사도들의 동일한 전통들을 모든 회중들이 따르기를 사도들이 의도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오순절교인, 영국국교인 아니면 다른 무슨 교인이든 간에 모든 참 교회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확실한 것들이 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Stanley Greensdale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성령님의 속 생명, 세계 복음화 그리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²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설립한 교회들에서 의도적으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다.

사도 전통들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임

HOLDING TO APOSTOLIC TRADITIONS IS LOGICAL

고린도전서 4:16-17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기로 계획하는 것이 쓰여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생활 방식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그들이 바울을 본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바울의 충실한 봉사와 사도로서의 겸손함에 대한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¹

바울의 말에 나타난 관습의 일관성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생활 방식은 그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과 일치되었다. 일관성이 있었던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생활 방식에 대한 전통들이 있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을 결정했다. 그의 교리가 그의 의무를 자연히 결정지었다. 이와 유사하게, 교회의 기능에 대한 사도들의 믿음이 그들이 교회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고린도 전서 4장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교회 관습과 현저히 동 떨어져 있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사도들의 방식들을 본받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교회의 목적을 진실로 이해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원래의 사도들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친히 택하시고 3년간 직접 훈련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¹ 이후 인용되는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4판 성경

들에게 40일 이상 나타나셨다 (사도행전 1:3).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이전에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14-16).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은 사도들이 이후 교회를 설립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교회 관습에 대하여 직접 다루고 있는 구절인 디도서 1:5에서 바울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썼다. 디도서 1장은 각 도시에 훌륭한 장로들을 지명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교회에 관하여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수행되는 사도들의 방식이 있었음이 이 구절에 의해 분명해진다. 교회들을 구성하는데 따라야 할 질서, 모범, 그리고 전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11:34 (교회 생활에 대한 주제 중 하나인 성만찬에 대한 관습을 다룬 구절)에서 바울은 “The rest I will *set in order* when I come” (KJV, 기울임 꼴은 본인이 한 것임)라고 썼다.

1858년 남침례교 신학자 J. L. Dagg는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명령 외에는 우리를 속박할 것이 없다고 말꼬리를 잡는 주장을 펼 권리도 없다. 우리가 고안해 낸 방식을 따르는 대신 생명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야 한다 ... 우리의 부족한 지혜가 제시하는 것들 보다는 사도들이 교회 조직과 정치 형태를 택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성령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썼다.³

사도 전통들을 따르는 것은 칭찬받아야 함

HOLDING TO APOSTOLIC TRADITIONS IS PRAISEWORTHY

고린도 전서 10:31-11:1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다시 강조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하라고 권한다 (10:31-11:1). “본받는 (follow)” (고전 11:1)이라는 단어는 mimatai에서 나온 것으로 “mimic”의 기본어 (basis)이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그러한 면에서 자신을 본받기 원하였다. 바로 다음 절 “I praise you because you remember me in everything, and hold firmly to the traditions, just as I delivered them to you” (11:2, NASV)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이 다른 일들에서도 그들이 바울을 잘 본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무엇이 전통인가? “가르침”에 대한 통상적인 그리스어는 didaskalia (didactic의 기본어)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니다. 대신에, paradosis (tradition, 전통)이 사용되었다. Paradosis가 종교적 교훈을 구전하기 위한 유대교의 기술적인 용어였지만 이 문장에서는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고 오히려 예배에 관한 종교적 전통들을 가리킨다고 Gordon Fee는 지적했다.⁴ 사용된 그리스어는 기본적으로 “전해져 온 것”을 의미한다.⁵ 무엇이든 전해져 올 수 있었다: 풍습, 가르침, 또는 심지어 사람 (배신이나 억류에 의

해)⁶ 동일한 그리스어(동사 형태)가 고린도 전서 11:23에서 (전해져 온) 성만찬에 대한 신학이나 관습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영어에서 전통은 일반적으로 풍습이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특정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은 상속된 생각이나 행동이다. 대중적인 정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것” 일 것이다. 따라서 전통은 (예를 통해서나 명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진 것 또는 건네진 것이다.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사도는 예배에 관한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11:2에서 바울이 사용한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고려하자. 이 단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 또는 적어도 “주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모든 일 (everything)” (고전 11:2)라고 쓸 때, 사도는 마음 속에 어떤 주제들을 갖고 있었을까? “모든 일”이라는 단어 사용은 바울의 의도된 적용이 고린도 전서 10:31-11:1 (복음 전도)에서 발견되는 권면 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모든 일”이 교회 질서를 포함 했었을까? 정말로 그러했다. 11:2에서의 바울의 칭찬은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알린다: 머리 가리는 것(11:3-16). 이 새로운 주제는 교회 관습의 영역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다. (머리 가리는 것에 대한 문장의 바른 적용을 다루는 것은 이번 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 당시 교회에 적합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러하다.)

“그대로 (just as)” (11:2)라는 단어들은 바울의 전통들에 대한 순응의 범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세밀한 부분에까지 순응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진 복사와 같은 종류의 영향이었다!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준 전통들을 그들이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을 칭찬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이 세운 전통들의 일부를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 하도록 의도했다(여기서는 머리 가리는 것). 하지만 “전통들 (traditions)”은 복수 형태이다. 바울은 머리를 가리는 전통 이상을 분명히 생각했다.⁷ 우리는 이 전통만을 고수 해야 하나, 아니면, 신약성경에서 읽혀지는 교회 조직을 위한 모든 모범들을 따라야 하나?

모세 법령은 기본적으로 예증(例證)적이었다. 사례법 이었다. 모세에 의해서 소수의 근본적 법률 예제들이 기록되었다. 그러한 예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삶의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하도록 신자들은 기대되었다. 예를 들면, 들의 모퉁이들은 추수를 하지 않은 채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 먹게 하였다. 올리브 과수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이 밭 농부에게만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라는 부담이 지워지지만 올리브 과수원 주인은 마지막 올리브까지 수확하라는 의미인가? 분명히 아니다. 농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농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일정 부분을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도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증적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교회들이 특정한 전통 (예를 들면, 머리 가리는 것)들을 따랐을 때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사도들이 교회 설립 시에 모형으로 삼았던 다른 모범들에 대하여 이 예를 우리가 적용하도록 요구된다.

전통에 대한 흥미 있는 모순이 목격될 수 있다. 고린도 전서 11:2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 (paradosis)가 마태 복음 15:1-3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

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질책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난하셨지만, 바울은 사도의 전통들을 지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였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이다. 하지만, 사도들의 전통은 예수님의 계명들과 일치하였던 것이다. 사도들의 전통들을 고수하는 것은 칭찬해야 하며,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칭찬으로 증명되었다 (11:2). 우리 주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우리의 역량을 방해하는 전통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사도들이 세운 원래의 전통들을 대체하는 전통들을 개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보편적이어야 하는 사도 전통들을 따라야 함

HOLDING TO APOSTOLIC TRADITIONS IS TO BE UNIVERSAL

바울은 다른 모든 교회의 보편 관습에 호소함으로써 머리 가리는 것에 논쟁을 하려는 자들을 잠잠케 하였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고전 11:16). 이 결정적인 언급은 다투기 좋아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였고 논쟁을 해결하였다. 바울은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 초점이다. 하나가 다르다는 것이 반대를 잠잠케 하기에 충분한 논쟁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되기를 예상하는 특정한 관습들에 대하여 우선적인 강조가 주어졌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 11:16은 모든 신약 교회들에 대한 관습의 획일성을 진술한다.

고린도 전서 14:33b-34 (교회 관습에 대한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보편적으로 진실이어야 할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기울임은 본인이 한 것임) 이 절의 올바른 적용에 관계없이, 바울은 순종의 근거로 모든 교회들에 있는 보편적 모범에 다시 호소 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36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은 아니오 이다. 이는 신약 교회들에서의 획일성을 가리킨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모든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이들 두 개의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모든 교회들과 동일한 것을 행하게 했다. 사도들의 전통들 (신약 교회 모범들)을 고수 하는 것은 1 세기에서 보편적이었고 또한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중국의 가정 교회 선구자인 윗치만 니는 *The Church And The Work: Rethinking The Work*에 다음과 같이 썼다, “사도행전은 교회사의 ‘창세기’이고 바울 시대의 교회는 성령님 사역의 ‘창세기’이다 ... 우리는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작에 우리의 본보기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다. 이것은 신적 표준이며 항상 우리의 모범이 된다 ...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셨는데, 이는 지시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행해져야 할 것을 소유하신 것이어서 앞으로 올 세대에서는 단순히 모범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된다.”⁸

하나님의 평화스러운 임재를 부르는 사도 전통들을 고수

HOLDING TO APOSTOLIC TRADITIONS BRINGS GOD'S PEACEFUL PRESENC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4-7) 빌립보서 4:4-7의 주된 관점은 환경에 관계없이 주안에서 기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절 (빌 4:8-9)에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는가에 대한 비법을 받았다. 확장하여 생각하면,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될 수 있다. 바울을 다음과 같이 썼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배웠거나, 받았거나, 들었거나, 아니면 봤거나 *무엇이든* 실행하라고 교육받았다 (빌 4:9). 문맥에서 우선되는 적용은 그리스도의 비하(卑下)를 따르는 것, 남들을 존중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확장하면, 여기의 *무엇이든* 에는 신약에 소개되는 바울이 교회들을 조직하는 방식을 포함하지 않을까?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 교회를 세웠는지는 성경에 상세히 나와있다. 사도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도의 교회 관습을 따르는 친교에서 하나님의 평안한 임재를 누릴 수 있겠는가?

사도 전통들을 지키라고 명하셨음

HOLDING TO APOSTOLIC TRADITIONS IS COMMANDED

데살로니가 후서 2:15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stand firm and hold to the traditions which you were taught, whether by word of mouth or by letter from us” (NASV) 라고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이나 글로 전해진 사도들의 전통들 (paradosis)을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받는다. 12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면하여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전통들을 기록한 편지들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전반적으로 교회 관습 보다는 종말시의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들 (traditions)” 이라는 단어 (2:15)는 복수 형태이다; 저자는 재림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 보다 더 많은 견해를 갖고 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모범적으로 보여 준 것 같이, 교회 규율 (church order)에 대한 그의 전통들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흥미롭게도 NIV에서는 전통들 대신에 가르침들 (teachings)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통 (paradosis)이 가르침 (didaskalia)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 문장은 종말에 대한 사도들의 구전 전통 (oral tradition)에 관한 것이다 (살후 2:1-12). 하지만, KJV, ASV, RSV 그리고 NASV 모두 이를 전통들 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이는 paradosis에 대한 정당한 번

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통들에 대한 구절들의 의미는 분명히 파악되어야 한다. 많은 신자들은 사도 전통들이 흥미롭지만 따르는 것이 명령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15는 무엇이라고 지시하고 있는가? 사도 전통들을 고수하는 것이 확실히 명령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지 제안되어 있는가? 의미심장하게도 이는 분명히 명령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고수해야 할 것은 사도의 가르침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 전통들인 것이다 (성경에 명백히 계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들은 사도들의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도 전통들을 따라야 된다.

전통들에 대한 동일한 태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3:6-7a에도 표현되어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은 한가하고 게으른 것과 수입이 있는 직업에 대한 것이다. 상황상, 이 전통은 교리 보다는 관습은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들은 교회들이 사도들의 전통들 (신학과 관습 모두)을 따르기를 원했다. 우리가 종말론과 근로 태도에만 이들 성경적 전통들을 한정 시켜야 하나?

미국 로드아일랜드와 제일침례교회의 설립자인 Roger Williams는 교회들이 신약 교회 형태들과 규례들에 가능한 가까이 따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독교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⁹ 이러한 믿음은 Roger Williams로 하여금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신약 모범의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세우게 하였다.

일관성

Consistency

교회 관습에 대한 신약 모범들을 고수하려는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 적용되었던 규범적 교회 관습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날의 교회들에 대한 규범적 관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회 관습에 대한 모범들이 오늘의 교회에 오랫동안 결핍되었던 역동성을 초대교회에 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성경이 직접적으로 지시한다면, 우리는 명백히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도들의 전통들을 고수하라 (살후 2:15)고 성경이 지시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신약 성경에서 이들이 실행된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가?” 가 아니다. 오히려, 질문은: “우리가 왜 달리 하기를 원하는가?” 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따라야 할 명백하고, 성경적인 사도 전통들은 무엇인가? (초대 교회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교파에 관계없이 학자들 간에 일반적인 의견 일치가 있음을 당신이 읽었음을 기억하시오.)

1. *성만찬은 온전한 식사로 거행되었고 (고전 11:17-34), 매주 함께 먹었으며 (행 20:7, 고전 11:17-22), 매주 모이는 주된 이유 (행 20:7, 고전 11:33).*
2. *상호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친교를 갖는 것을 모임의 주목적들 (행 2:42, 고전 14:3-*

- 5, 12, 26, 히 10:24-25)로 하는 참여적인 교회 모임들 (고전 14:26, 37, 히 10:24-25).
3. 합의에 의한 교회 정치: 장로가 다스리기 보다는 인도하는 교회들 (눅 22:24-27, 벘전 5:1-4). 남성에 의한, 복수의, 비계층적이며, 가정 발생적이고 봉사적 지도를 하는 교회 장로직 (딤후 3:1-7).
 4. 가정 크기의 교회들, 즉, 다른 모든 신자들 및 모임들과 동일한 태도를 갖는 작은 모임들(롬 16:5, 골 4:15, 몬 2).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 자체에는 신비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고, 보다 작은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신약 규범은 소수의 대형 교회들 보다는 다수의 작은 교회들이다.
 5.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첫날인 주일날 정기적으로 모임 (마 28:1-7, 행 20:7, 고전 16:1-4, 계 1:9-11).
 6. 교회 모임에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석한다 (마 19:13-15, 눅 2:41-50, 행 21:5, 엡 6:1-3, 골 4:16). 따라서, 교회들은 가정들을 더욱 분리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화시키고 결합시킨다.
 7. 일상의 교제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교회 (행 2:42-47)
 8. 사도들, 목사-교사들, 복음전도자들 등의 순회 사역자들의 사역에 의한 교회 재생산 및 준비 (엡 4:11-13). 이들 사역자들은 지역 교회의 정기적인 참여 모임들을 지원하지만 대체하지는 않는 많은 사역 모임들을 갖게 된다.
 9.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기 위한 정기적 사역 모임들이 특별히 마련되었다 (행 2:42, 15:32, 20:7, 롬 12:7, 딤후 5:17).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성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들 모범들의 일부를 이미 따르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전부가 아닌지 의문을 갖는다. 설명에 대한 부담은 신약 모범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신약 모범에서 이탈한 이들에게 지워진다. 사도들은 전통들이 전해져 내려온 그대로 모든 교회들이 지킬 것을 명백히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은 특별히 중요하다 (고전 11:2).

위험들

Dangers

생명력없음(Lifelessness). 교회 생활이 외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생활이 잘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생명을 갖되, 풍성하게 갖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 10:10). 포도주가 들어있지 않은 포도주 병은 거의 쓸모 없다. 유사하게, 기술적으로 바른 교회 관습도 성령의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껍데기뿐이다. 불이 없이 쌓여있는 마르고 건조한 나무일 뿐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들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요 15:5). 부활하신 주님과의 일상적인 동행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완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다. 예수님이 실체 (reality) 이시다; 사도 교회의 관습은 실체를 적용하는 것이다.

면허(License).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내면적 실체를 진실로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유혹은 내면적 실체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임의 (任意)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 (포도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다 덜 중요한 것 (포도주 부대)은 그들이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면허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는다. 사도들의 방식들에 제한 받는 것을 지각 없는 흉내라고 여긴다. 예수님 안에 확고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적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름아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잘못된 용기에 부으면 포도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마 9:17). 교회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도들 보다 진실로 더 많이 알고 있는가? 교회 관습에 대하여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바울은 훈계한다 (고전 14:37).

간혹, 신자들은 일부 전통 교회들의 숨막히는 관료제에 과잉 대응하여 무정부주의자 같이 된다. 그들은 이상주의에 의해, 조직화를 반대하게 된다.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것은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느낀다. 이는 그릇된 이분법이다. 이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와 유사하고, 예수님께 죄가 없었다면 실제로 성육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와 유사하다. 신약 교회는 제대로 조직화 되었으며, 우리 주님의 요구 사항들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을 마찬가지로 제대로 조직화 하여야 한다.

율법주의(Legalism). 신약교회 모범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화된 예외들이 있는가? 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제정되었듯이 (막 2:27), 신약의 모범들을 엄격히 지키는 것 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예외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런던 가정교회 목사 Beresford Job은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정황을 고려해서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것이 실질적인 규범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예로 물 세례를 들자. 물 세례에 대한 실제적인 방식은 어디에도 명하여 지지 않았으나 초대교회가 수행한 방식 (사도 전통)으로부터 회심 후 침례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baptizo 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침례이다.) 침례가 신약 모범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 후에 물에 완전히 잠기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신마비로 침대에 누운 채 주님께 실려온 환자를 생각해 보자. 침례는 분명히 전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적합한 방식의 세례가 확실히 허용되는 것이다. 성경의 예와는 기술적으로 어긋나지만, 의향과 의도에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언급한 것이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세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 갱신 옹호자 Darryl Erkel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동료 형제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멀리하거나 경시하기 시작하는 율법주의 형태의 독특한 신약 모범들을 만드는 위험”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우리들이 따르는 사도 모범들에 근접하여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들의 교회가 거짓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 것은 자만에 불과한 것

이다. 오히려, 신약 형식의 교회에 의해 최선으로 수행되는 신약교회의 기능을 위한 - 하나님 백성의 영적 성장에 보다 영향력이 있는 - 보다 나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고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경이 무언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 명령도 없고 따라야 할 모범도 없다면 -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 성경에 어떤 관습이 없다면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정적 성경해석학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초대 교회에서 규범적이었던 관습들을 고수해야 한다만 한다고 주장하는 규범적 성경해석학을 증진시키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사안들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로마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신약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것들을 무심코 따라 하는 것 (로마 시민들의 긴 옷을 입는다는가, 샌들을 신는다는가, 양피지에 글을 쓴다는가, 오일 램프 옆에서 공부한다는가, ...)과 사도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해답은 신약 교회 관습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 신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범들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는 특정 교회의 일회적 행사였다.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이지 명령도 아니고 성경적 모범도 아니다.

결론적 논평들

Concluding Comments

-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적 가르침이나 성경적 모범 (전통)으로 지시하신다.*
-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회 관습의 모범들을 모든 세대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따라야 한다.*
-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사도 전통은 사도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 *생명감이 있는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매주 온전한 식사의 친교로 거행되는 성만찬 (고전 11),*
 - *정기적인 참여적 교회 모임들 (고전 14),*
 - *(장로들이 다스리기 보다는 인도하는, 눅 22:44이하) 합의에 의한 교회 정치,*
 - *거실 크기의 교회들 (롬 16:5)*
- *신약 모범들을 따르는 것은 로마 문화를 맹목적으로 재생하는 것(로마 시민들의 긴 옷을 입는다는가, 양피지에 글을 쓴다는가, 오일 램프로 조명한다는가,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신약 모범들을 따른다는 것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본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형식의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움이 물론 있다.*
- *성경적 가정 교회들은 기존의 교회들과 달리 프로그램 지향이거나 건물 지향이 아니다. 이 때문에 성경 기반의 가정교회들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잘못 결론을 내린다.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는 교회에 이르게 된다. 가정 교회들은 제도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조직화 되어야*

한다. 사도들이 세운 전통들을 따르는 것은 가정 교회들이 지도자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정기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임들이 있어야 하고, 본연의 안정적인 신학을 가져야 하며, 교회 권징이 시행 중이어야 하며 매주 성만찬이 거행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들 모범들은 율법주의, 죽음, 껍데기 뿐인 형식, 빈 껍질이 된다 (요 15:5). 우리에게는 적합한 포도주 부대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 다 자신의 자리가 있다. 양쪽 모두 상대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눅 5:36-38).

단지 서술되었거나 묘사된 것은 규범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한 Fee 교수와 Stuart교수의 인용을 기억하는가? 그들의 책 제2판에는 변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단지 기술되어 있거나 묘사되어 있는 것은 규범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 저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의도하는 다른 근거들에 의해 논증되지 않는 한” (“Unless Scripture explicitly tells us we must do something, what is only narrated or described does not function in a normative way -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on other grounds that the author intended it to function in this way.”)¹⁰ 교회 질서를 위해 마련한 모범들을 따르도록 사도들이 교회들을 구성했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우리는 시도하였다.

교회 지도자들 다수가 초대 교회의 관습들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제시된 구절들을 그들이 연구한 후 우리의 적용들을 배척했기 때문인가? 사도 전통들이 적용되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신학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교단에서 계승되는 역사적 전통을 단지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도시대가 막을 내린 후에 개발된 문화적 교회 전통들을 단단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현대적인 전통을 위하여 사도들의 영감된 전통들을 무효화 하는 위험이 있다 (마 15:1-3).

선교사이며 순교자인 Jim Elliot의 생각에 동조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모범들을 계시 하셨는가에 중심 국면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든 잘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들이 없이 방치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더욱이 20 세기는 공동체에 대한 교회운동을 하는 방법에서 이러한 모범을 흉내 내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모범을 갖고 계시다면 기어코 발견해서 확립해야 한다고 나는 더욱 확신한다.”¹¹

- Steve Atkerson

토론을 위한 질문들

Discussion Questions

1. 원래의 사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질문을 하자. 교회 관습에 대한 그들의 예들을 당신이 따르리라고 그들이 기대했다고 답을

할 것으로 생각하나, 아니면 당신의 고안하는 방식을 수행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생각 하나? 설명하십시오.

2.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때 사용된 방식에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는 공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3. 모든 신약 교회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관성이 있는 관습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습이 각각 고유하고 다르다고 하는 신약 구절들은 무엇인가?
4.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지만 (마 15), 사도 바울은 그의 전통을 지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였다 (고전 11). 왜 차이가 있는가?
5. 신약에서 발견되는 사도 전통과 역사에서 발견되는 교부들의 후기 전통을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느 쪽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가? 왜?
6. 모세의 법은 본질상 *例證的*이다. 구체적인 사도의 전통을 따르라는 신약의 명령들 (데 후 2:15, 3:6)에 *例證的*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7. 바울이 교회들을 조직한 방식에 관하여 빌립보서 4:9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8. 모든 교회들이 따라야 할 모범들을 만들 권세를 사도들에게 준 분은 누구인가? 요 13:20, 15:20, 행 1:1-3, 2:42.
9. 사도 전통들을 고수하는 것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을 무심코 복제하는 것 (샌들을 신는 다든가, 양피지에 글을 쓴다든가, 오일 램프 옆에서 공부한다든가, 로마 시민들의 긴 옷을 입는다든가, ...)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었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어느 것이 사도 전통이고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11. 교회 관습에 대한 사도 전통들 중에서 오늘날 흔히 무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12. 초대 교회의 실질적인 관습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3. 교회 관습에 대한 신약 모범들을 오늘날 교회는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도들의 전통들이 단지 재미 있는 역사인가 아니면 규범적 교회 관습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14.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먼 원초적 1 세기 교회를 재창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초보 단계를 넘어 서기를 바라신다고 말한다. 게다가, 원래의 사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므로 1 세기 교회 같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15.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적 전통 보다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 흔히 더 우선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16.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신약 모범들에 대하여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거의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카페테리아 방식으로 사도 모범들을 따르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註): NTRF는 신약교회 생활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www.NTRF.org에서 *The Practice of The Early Church: A Theological Workbook (Leader's Guide)*를 신청하기 바란다.

Notes

- ¹ Gordon Fee &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1st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2), 97.
- ² Stanley Lawrence Greensdale, "Early Christian Church," Encyclopedia Britannica, ed. Warren Preece, Vol. 7 (Chicago: William Benton, Publisher, 1973), 844.
- ³ J. L. Dagg, *Manual of Theology: A Treatise on Church in Order* (Harrisonburg, VA: Gano Books, 1990), 84-86
- ⁴ Gordon Fe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7), 499.
- ⁵ Fritz Rienecker, *Linguistic Key to the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423.
- ⁶ Beuer, Arndt, Gingrich & Dank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615.
- ⁷ Fee, 500.
- ⁸ Watchman Nee, *The Normal Christian Church Life* (Colorado Springs, CO: International Students Press, 1969), 8-9
- ⁹ Edwin Gaustad, *Liberty of Conscience: Roger Williams In America*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06
- ¹⁰ Fee & Stuart, 2nd Ed., 106.
- ¹¹ Elizabeth Elliot, *Shadow of The Almighty: Life and Testimony of Jim Elliot*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9), 138-139.